현불뉴스

종립광동여고 교내 봉축

오정부 광동여고(교장 김양수)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교내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꽃들의 큰잔치'를 거행했다.

재학생 1천2백여명의 신심함양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합동수계식, 찬불가 경연대회, 연꽃노래잔치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학장선임 반대 성명

중앙승가대학 학생회(회장 원철)는 이사회의 차기학장 선임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지난 17일 이사장 월주스님을 항의 방문했다. 학생회는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총무원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문제 △학교이전에 관한 향후 대책 △이사회의 일방적인 학장 결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청도군민 위안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청도군사암연합회(회장 도견스님)는 지난 20일 청도군 공설운동장에서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군민 위안대법회를 봉행했다.

'맑고…' 대구음악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회주 법정스님) 대구준비모임 주관으로 열린 '법정스님과 함께 하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가 지난 22일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사)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대구 동화사에서 제21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유해환경 근절운동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는 오는 29일 인천백화점에서 5월 청소년의 달 특별 정화캠페인을 벌인다.

6월 1·2일 조계사·수송공원 일대 '청정국토 한마당'

문화공연등 환경행사 다채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 주제

2540년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고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불교환경교육원등 24개 신행·환경단체들은 오는 6월1일부터 2일까지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를 주제로 불교환경축제인 '제2회 96 청정국토한마당'을 조계사와 수송공원 일대에서 펼친다.

불자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불교환경축제는 1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생명살리기 불자의 서원을 다짐하는 기념법회에 이어 4시 30분부터는 녹색예술단의 관소리 수궁가를 각색하여 환경을 살리자는 내용의 환경마당극 '금수강산 썩을씨고'가 공연될 예정이다.

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청소년 어린이행사로 조계사에서 어린이 청소년 포스터 글짓기 전시회와 수송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환경만화가 사인회' 우리 농산물로 만든 어린이 요리경연 '신토불이 꼬마요리사' 제기차기 고무줄놀이 공기등 전통민속놀이 '가족전통민속놀이 한마당'이 다채롭게 열린다. 이날 문화공연행사로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환경비디오'(문화관)가 상영된다.

또 교환 및 판매행사로는 2일 환경상품전시 및 판매행사가 전개되고 △생명나무 만들기 △금연침 놓아주기 △전통차 마시기 △발우공양 시연 △재생비누제작시범 및 판매 △레몬스프레이 제작시범이 조계사 경내에서 개최되고 북한산에서는 우리는선우가 새집 달아주기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와함께 개발로 사찰이 훼손되고 있는 국립공원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국립공원 파괴와 사찰환경 사진전시회 △국립공원지키기 서명 및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한편 여성불교연합회는 4일 서울 명동 LCI프라자 2층에서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이정전교수(서울대)가 '환경보전을 위한 바람직한 소비생활' 전재성교수(한국불교대학)가 '환경윤리학의 제반문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종교 문화예술 학술 시민운동 등 69개 단체는 지난 22일 종묘공원에서 경주문화재보존 촉구 대회를 열고 건교부 노선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진=고영배 기자〉

경주통과반대 시민운동 확산

재가회의·경실련·역사학회등 69단체 적극 동참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반대 여론이 범시민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불교재가회의를 비롯한 불교계 32개 단체와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 경실련 역사학회 등 시민운동 문화예술 학술 등 69개 단체는 지난 22일 '경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했다.

연석회의는 22일과 27일 잇따라 건교부노선반대와 문화재보존 촉구대회를 열고 "경주의 보존과 문화재 보호라는 대의에 충실한 결정을 내릴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결성 성명서에서 "경주통과는 단순히 경주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켜내는 역사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경주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하고 도심통과 반대운동과 함께 경주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5월말로 예정된 노선결정 최종시한을 남겨놓고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경주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노선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심 메운 연합봉축 행렬"

18일 부불련·신도회등 7천여 불자 동참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연합대법회와 차량 장엄물 행렬이 7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오후 부산사직 실내체육관과 부산시 일원에서 봉행됐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성오)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 공동주최로 봉행된 이날 연합법회에서 군법당과 각급 학교 불교학생연합회, 공창, 개금, 두송복지관 등에 포교지원비가 전달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물 행렬에서는 법어사, 삼광사, 한마음선원, 천불사 등에서 참가한 70여개의 장엄물이 등장했으며 행사장에서 구덕운동장까지 20㎞에 이르는 구간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행됐다.

경불련 '자비의 집' 서울시 지원단체로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회(공동대표 설조·안동일)가 운영하는 자비의 집이 서울특별시 시민단체 지원사업 대상단체로 선정됐다. 자비의 집은 이번에 도시락 배달, 빨래·청소 등의 가정방문 봉사, 한방의료봉사, 명절음식 나누기 활동이 건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전개한다.

성남·울산서도 사찰방화

망경암·백련암 대웅전 전소…교계 '불비상'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교도들에 의한 사찰방화가 계속돼 교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23일 0시10분경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망경암(주지 정법)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20여평의 대웅전을 전소시키고 25분만에 꺼졌다.

이에앞서 지난 19일에도 울산 백련암(주지 박성철)에 화재가 발생 34평의 대웅전을 전소시켰다.

이번 방화사건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서울 삼성암, 본원정사, 화계사 등을 비롯 사찰방화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망경암 주지 정법스님은 "몇년전부터 이교도들이 성경책·선교용 테잎 등을 사찰에 놓고 가는 한편 심지어 법당에까지 난입, 붉은 페인트로 '마귀야 물러가라' 등의 문구를 새겨놓아 이번 방화도 이교도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열리는 새날 정진하는 불교청년"

대불청 15차 청년대회 6월 15일 열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6월15일부터 16일까지 수원전문대에서 제15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열리는 새날 정진하는 불교청년'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경기지구를 비롯 전국 각 지부·지회 회원 1천5백여명이 참석, 대한불청 화합의 한마당을 펼친다. 특히 이번 전국불교청년대회는 기존의 통일운동뿐만 아니라 불교도의 효행관이 사회선도와 인류애로 실천, 회향될 수 있는 가치관을 정립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어 77년의 대불청 역사에 또다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15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공동체놀이, 통일성곽순례(수원성), 세미나(21세기를 향한 불청의 발전과 역할), 집체극, 강강술래 등의 행사를 다채롭게 펼친다. 또 16일에는 정락스님(용주사 주지)이 '불교도의 효행관과 인류애로의 실천회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백팔염주 목에 건 바조

월드컵 한국유치 홍보차 방한 김흥국씨 염주·CD앨범 선물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 홍보를 위해 방한한 세계적인 불자축구 선수 로베르토 바조와 불자가수회 회장 김흥국씨가 지난 22일 쉐라톤 워커힐 호텔서 만났다.〈사진〉 생방송을 막 끝내고 약속시간보다 늦게 호텔에 도착한 김흥국씨가 기다리다 숙소로 올라가려던 바조선수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것. 김씨는 자신을 한국의 유명한 불자가수라고 소개하고 108염주를 바조선수의 목에 걸어주며 "종파는 다르지만 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바조 선수에게 내가 평소 아끼던 108염주와 나의 CD앨범 '2002년 월드컵 코리아'를 선물한다"면서 "조계사를 방문했으면 더욱 좋았을 걸 그랬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바조선수도 "진심으로 2002년 월드컵이 한국서 유치되길 부처님께 기원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흥국씨는 지난 21일 강남 봉은사에서 새벽 3시부터 5시간에 걸쳐 월드컵 유치기원을 위한 2002배를 완료했다. 김씨의 2002배는 오는 28일 KBS 2TV '도전 회전목마(밤 8시25분)' 시간에 방송된다.

이은자 기자

조계사 대웅전 해체 복원키로

현대건설과 42억여원 보상합의

현대건설이 조계사에 대웅전 복구·보상비를 지급키로 합에 따라 한국일보 신사옥건설로 인한 대웅전 붕괴 진행으로 빚어진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조계사와 현대건설은 지난 17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조계사 피해복구에 대한 희의를 갖고 복구보상비로 42억6천만원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6개월에 걸쳐 이 금액을 조계사에 지급키로 했으며, 29일 1차분 8억원을 당좌수표로 조계사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조계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이후 대웅전을 해체 복원할 예정이다.

조계사 대웅전과 해탈문 총무원청사는 지난해 3월 한국일보 신사옥건설에 따른 지반발파공사로 인해 대웅전 상량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내려앉는 등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뇌사 17세 불자 김종운군 장기기증

못다한 삶 '생명나눔으로'

부처님오신날을 10여일 앞둔 지난 16일 서울 중앙병원의 한 수술실에서는 여러명의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화물트럭과 충돌해 뇌사상태에 빠진 올해 17살의 한 청소년이 자신의 각막 및 장기기증으로 무려 네사람에게 새생명을 주고는 가족들과 주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현장이었다. 이같은 보살행의 주인공은 진주상업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던 김종운군으로 불심돈독한 가족들의 뜻에 따라 생명공양을 실천했다.

아들의 급작스런 사고로 실의에 빠져 있던 최군의 아버지 최정국씨는 "내 자식은 삶을 다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갔지만 네사람의 가족을 더 얻었다"며 위로하면서도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들의 결심에 따라 감로심장회(이사장 정일)와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최종운군의 각막 및 장기기증은 불자 하정자 안태윤 정옥하 곽호성씨등 네 사람에게 기증됐다. 이는 거룩한 생명공양의 실천외에 교계단체간의 결연이 원만하지 않는 실정에서 서울과 지방에 있는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로 이뤄진 것으로 복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필〉

마음 苦는 苦가 아닙니다

고는 마음공부의 재료입니다. 고는 나를 깨우쳐 줍니다. 즐거움은 나를 공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잠자게 만들지만 고통은 내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고는 고가 아닙니다. 고를 통해 공부를 하게 되었다면 고는 축복입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 귀하는 외국에 나가면 민간외교 사절입니다 ·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 TEL (02)779-6954
※문화체육부 일반여행업등록 제8호 · KATA 광고 심의필

MBC 해외 문화탐방
실크로드
千年佛心이 살아있는 실크로드 대순례

혜초스님이 가셨던 求道의 길로-
고대중국의 찬란한 불교예술이 숨쉬는
돈황의 막고굴, 그 천년벽화의
신비를 직접 만나보십시오.
투르판의 고창고성에선 삼장법사의
전설같은 발자취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MBC 프로덕션과 한진관광이 함께
마련한 실크로드 대순례-
불자 여러분께 잊지못할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출발일 6월17, 20, 24, 27
7월1, 4, 8, 11, 15, 18

탐방일정 9박 10일
천진-북경(2), 이화원, 만리장성, 자금성등-우루무치(2), 흥산, 천산, 천지-투루판(1), 천불동, 화염산, 고분군등-열차박(특실1박)-유원-돈황(1), 막고굴, 명사산-서안(1), 종루, 서안성벽, 비림, 병마용, 진시황릉, 화청지-북경(1), 천단공원

특전
1. 특식제공(북경 오리구이, 서안 교자연)
2. 중국 전통 방당가무 관람
3. 진시황릉, 병마용, 천산, 천불동, 돈황석굴 등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신비의 관광 명소 종망라
4. 특급 및 각 지역 최고급 호텔 이용
5. 고급 여행용 가방 및 기념 티셔츠 증정

참가비 1,850,000원






주최: MBC 프로덕션
후원: 大韓航空
주관: 韓進觀光
문의전화 726-5791~7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132-4 한일B/D
부산: 463-2115 대구: 426-6706/8 대전: 252-2034/5
제주: 42-7217 경주: 745-3070/3 광주: 228-0041/2

●공통여행조건 1. 전일정 식사포함(기내식 포함) 2.왕복항공편 이코노미석, 전용버스, 열차(특실) 이용 3.특급 및 각 지역 최고급 호텔 사용(2인1실 기준) 4.출발일 7일전 예약마감, 15명이상 출발 5.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6.전문 투어 가이드 동행